

20세기 韓日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Products of Each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최 정 태(Jung-Tai Choe)

이 제 환(Jae-Whoan Lee)

노 지 현(Jee-Hyun Rho)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0년 동안(1901년~2000년) 韓日 양국이 서로에 대해 생산해온 학술적 성격의 지식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심분야와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분야별로 또는 연구주체별로 단선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韓日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연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능해 보고, 나아가, 韓日 양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유통체계를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어떠한 관리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Korea and Japan has produced about each other for the period of 1901~2000. To this end, we collected comprehensively the monographs produced by each country, and built a database named as “Korea-Japa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Using this database, we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nograph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ublication period and subject. Also identified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of monographs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inally suggested wa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duced monographs.

키워드: 한국, 일본, 한일관계, 지식정보, 단행본, 연구동향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KRF-98-005-C00479)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tchoe@pusan.ac.kr)(jwleeh@pusan.ac.kr)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hojee@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5월 25일

참고문헌

- 1) 쪽한국의 일본연구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접근한 주요 서지 DB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회과학도서관, 기타 단위 대학도서관 DB
 - 국사편찬위원회, 홍익대 한국사 서지, 한일관계사학회 등에서 자체 구축한 DB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국내일본관련논저] 목록
- 쪽일본의 한국연구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접근한 주요 서지DB
 - 國立國會圖書館 (National Diet Library)
 - 國立情報學研究所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文部省學術情報センター (NACSIS: 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 東京大學 総合圖書館 (University of Tokyo Library System)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for Asian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 朝鮮史研究會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獻目錄データベース]
 - 日本貿易振興會 アジア經濟研究所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東洋文庫 (THE TOYO BUNKO: Oriental Library)

2) 본 연구의 범위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인데 반해, 대부분의 서지 DB들은 최대 1950년 이후의 자료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100년간의 연구범위 중 절반 가량은 인쇄본 서지 자료를 발굴하여 이 속에서 관련자료들을 탐색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령, 일본에서 구축한 가장 방대한 규모의 서지 DB인 國立國會圖書館 DB조차도 1948년 이후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출판된 자료는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資料目錄』과 같은 인쇄본 형태의 목록을 입수하여 수집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일본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탐색한 ‘인쇄형 서지 목록’은 총 67종이었으며, 일본의 한국관련 자료 목록은 총 33종이었다 (연구팀이 참조한 인쇄본 형태의 서지 목록은 논문 말미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3) 한국의 일본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대 일본연구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경남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등 일본관련 연구소 9곳을 방문조사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회, 현대일본연구회, 일본역사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문화연구회, 한양대학교 한양일본학회 등 일본학 관련 학술지와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학회를 조사하여 일본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학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國立國會圖書館, 國立情報學研究所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文部省 學術情報センター-(NACSIS), アジア經濟研究所, 日韓文化交流基金,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東洋文庫, 日本國際問題研究所, 韓國文化院 등을 방문하여 일본내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日韓文化交流基金에서는 본 연구팀이 방문했던 당시 『日本における韓國・朝鮮研究 研究者リスト』를 작업 중에 있어, 본 연구팀과 유사한 연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치밀하고 망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러한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다.

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팀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서지DB, 인쇄형목록, 관련 기관 방문조사, 관련 연구자 면담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망라적으로 조사하였다하더라도, 분명 누락된 자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차후 보다 세심한 조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본 연구팀이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둔다.

5) 주제영역별 분석은 ① 정치·경제, ② 사회·행정·교육·법, ③ 문화예술, 어문학, 사상·종교·철학, ④ 역사·지리 등 4부분으로 나누어, 다음의 논문에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재환, “20세기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 현황과 특성 분석: 정치·경제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최정태, “사회영역에 있어서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사회, 교육, 행정, 법률을 중심으로”; 박정길,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송정숙,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역사분야를 중심으로”(이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6)에 수록). 또한, 1945년 이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 중에 생산한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최정태, “日帝時代, 朝鮮總督府의 知識情報政策과 刊行物 分析”, 《韓國民族文化》 제17집(2001. 9), pp.121-287.

6) 가령, 산업연구원의 『일본 건설시장의 구조분석과 우리의 진출방안』(1989), 통신개발연구원의 『일본의 뉴미디어 보급정책』(1988), 안태호·임상희의 『일본적 경영의 원리와 실천: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서』(1986)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로 일본의 과거 경험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나 전략을 도입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단기적인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연구를 한국에 직접 도움이 될 일부 분야로 한정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7) 이러한 유형의 연구물로는, 선일구의 『일본의 진상』(1956), 윤정석의 『일본대외정책과 한국』(1988), 고병익의 『일본의 현대화와 한일 관계』(1992), 이봉하의 『가야가 세우고 백제가 지배한 일본』(1998) 등과 산업연구원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위상』(1989), 한승조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1995) 등을 들 수 있다.

8) 손대준의 『일본문화론』(1984),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 정치론』(1987), 윤건차의 『일본 그 국가 민족 국민』(1997)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9) 관련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1991), 독도학회(1996), 일본어문학회(1992), 일본역사연구회(1994), 일본연구학회(199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1984), 한국일본교육학회(1985), 한국일본근대학회(1999), 한국일본문화학회(1996), 한국일본사상사학회(1997), 한국일본어교육학회(1984), 한국일

본어문학회(1995), 한국일본어학회(1999), 한국일본학협회(1999), 한국일본학회(1973), 한국일어교육학회(1999), 한국일어일문학회(1978), 한양일본학회(1992), 한일경상학회(1983), 한일관계사학회(1992), 한일민족문제학회(2000), 한일법학회(1979), 한일일어일문학회(1996), 현대일본학회(1978) 등 총 24개

대학부설연구소 :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1996), 경기대 한일문제연구소(1992), 경희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198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속 일본연구실)(1972), 경상대 일본문화연구소(해외지역연구센터 內) (1993), 경성대 일본문제연구소(현재 인문과학연구소로 통합) (1986), 강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1995), 계명대 국제학연구소(1995),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부설 일본연구실)(1957), 관동대 동북아평화연구소(199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1970), 동국대 일본학연구소(1979), 목포대 아시아문화연구소(1996), 부산대 국제지역문제연구소 (1997),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문화연구소의 後身) (1982), 서강대 동아연구소(198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1961), 전남과학대학 일본생활문제연구소(1991),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1972),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1990), 중앙대 일본연구소(1979), 중앙대 한일문화연구원(2000), 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외국학종합연구센터 內) (1990), 한남대 일본연구소(1987), 한림대 일본학연구소(1994) 등 총 25개 ※()안은 창설연도

10) 이 연구의 대상시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는 明治維新 이후, 특히, 明治20년(1887년)에 접어들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된다. 물론 明治時代를 거슬러 올라가 江戸時代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강화도수호조약 이후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다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한국문제가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과제임을 재인식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연구를 시작한다. 당시 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에는 한국침략과 한국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월감·경멸감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의식은 江戸時代의 國學의 전통을 이어받아 온 것으로, 明治초년까지는 征韓論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脫亞論, 日鮮同祖論, 滿鮮史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조야의 관심이 한국문제에 쏠리면서, 일본학계의 눈도 일제히 한국에 쏠리게 된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지리, 법제 등 사회 제반에 걸쳐 한국연구가 확산된다. 그러나, 明治 30년(1897년)에 이르면 일본학계에서의 한국연구는 다소 시들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대륙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국에서 만주·몽고·서역·중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동양에 대한 관심 증대는 역으로 일본학계의 독자적인 한국연구를 시들하게 만든 계기가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일합방조약 이후 조선통독부에 의해 한국통치를 위한 관주도의 연구가 재개될 때까지 지속된다.

11) 특히 韓國史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학자에 의한 연구 축적이 막대하여 지금까지도 韓國史像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태에 있다.(고세훈,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연구수준 높이려면 전문가 대접해야”, 《WIN》 39(1998. 8), pp.189-191.)

12) 朝鮮學會는 학회지인 《朝鮮學報》를 통해 한국의 언어·역사·민속 등에 관한 실증주의적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13) 조선사연구회는 기관지인 《조선사연구회 논문집(現, 조선사연구)》을 통해서 ‘조선(남북한)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조선학회에 속한 戰前세대 연구자들이 한글조차 모르면서 한국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외면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본가의식’에 젖어 있었던데 비해, 조선사연구회 소속 戰後세대 학자들은 남북한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편견 없이 섭취하고자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를 통해 남북한에서 출판되는 많은 저작들을 번역 출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14) 이 시기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사나 중국사에 부수된 周邊史로 다루어졌고, 연구자들도 전문적인 한국 연구자라기보다는 일본사나 중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인적 관심에 의해 한국사를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남한과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으므로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15) 1990년대 초 시행된 일본 문부성의 대학개혁정책은 일본의 한국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정책을 계기로 일본의 대학에 국제문화학부가 많이 신설되면서 한국학 강좌도 늘어나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대학교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6) 가령, 川島清治郎의 『朝鮮論』(1924), 林泰輔의 『朝鮮通史』(1944), 平木實의 『朝鮮社會文化史研究』(1987), 高峻石의 『韓國現代史入門』(1987), 瀧澤秀壽의 『韓國社會の轉換』(1988) 등과 같이 한국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수행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실용적인 목적이나 양국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한국’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7) 葛生能久의 『日韓合邦秘史』(1930), 山邊健太郎의 『日韓併合小史』(1966), 萩原彦三의 『日本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法制』(1969), 森田芳夫, 長田かな子の 『日本統治の終焉』(1979), 『朝鮮獨立思想運動の變遷』(1986) 등과 같이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한 내용을 연구의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18) 金達壽, 谷川健一의 『古代日本文化の源流』(1986), 旗田巍의 『朝鮮の近代史と日本』(1987)와 같이 한국을 일본과의 교류, 또는 일본역사의 원류로서 연구한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분야의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의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19) アジア經濟研究所經濟法資料委員會의 『韓國の投資法』(1978), 宋浚의 『日本企業のための對韓技術輸出の手引き法的手續きから認可まで』(1978), 鈴木滿直의 『開放下における韓國の金融システム 資本輸出國への道』(1993) 등과 같이 국교회복 이후 일본의 한국진출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0) 대학부속연구소 : 亞細亞大學 아시아연구소(1973), 大阪經濟法科大學 아시아연구소(1987), 沖繩國際大學 南島文化研究所(1978),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1952), 關西外國語大學 國際文化研究所(1972), 九州大學大學院 人間環境學研究科(舊.九州大學附屬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1998),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1939), 慶應義塾大學 地域研究センター(1984), 創價大學 아시아연구소(1977), 拓殖大學 海外事情研究所(1955), 東京外國語大學 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研究所(1964),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1941), 東京大學文學部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朝鮮文化部門(1993), 東京都立大學 朝鮮史研究會(1959), 東北大學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1996), 東洋大學 아시아·아프리카文化研究所(1959), 鳥取女子短期大學 北東アジア文化總合研究所(1994), 福井縣立大學 北東アジア研究會, 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1919), 龍谷大學 佛教文化研究所(1961), 和光大學 總合文化研究所(1995) 등 총 21개

개별연구소 : 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經濟研究所(1960), (社)아시아調査會(1964), 아시아民族造形文化研究所(1986), 安重根研究所(1984), (社)大阪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舊. KMJ研究センター)(1984), 國立民族學博物館(1977), 環日本海經濟研究所(1993), 現代코리아研究所(1961), 高麗美術館研究所(1989), 國際在日韓國·朝鮮人研究會(1987), 國立國語研究所(1948), 在日朝鮮人研究會, 東洋文庫(1924), 社團法人 日本經濟協會(1960), 日韓合同授業研究所(1994), 日本國際交流センター(1973), 日本國際フォーラム(1987), 日本國際問題研究所(1959) 등 총 18개

관련학회 : 國際アジア文化學會(1992), 社會文化史學會(1964), 朝鮮學會(1950), 東洋音樂學會(1936), 東洋陶磁學會(1973), 白東史學會(1974), 民族藝術學會(1984) 등 총 7개 ※()안은 창설연도

21) 특히 대중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행본들도 대량으로 출판되었는데, 가령, 최춘길·황성규의 『일본문화와 사회』(1986), 우주형, 『일본인의 웃음』(1987), 조양욱의 『일본 리포트(한글세대특파원의 신일본탐험)』(1991), 남영애의 『일본무용의 기초 연구』(1992), 이규형의 『일본을 알고싶다』(1994), 김도연의 『일본 TV 벗기기』(1998) 등은 이러한 경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22)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조사에 따르면, 어문계열을 제외한 국내의 박사급 일본 연구자의 수가 경제학 57명, 법학 19명, 사회학 25명, 역사학 28명, 인류학 9명, 정치학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ias.snu.ac.kr/japan> ‘국내일본연구자’ 참조)

23) 일본은 식민지통치를 위해 朝鮮總督府를 설치한 후, 한국의 역사, 지리, 풍습, 언어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성을 왜곡, 말살하기 위해 이를 재해석하는 연구를 거국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 36년간 단행본 1,157종, 잡지 55종, 연보 265종, 총서 68종, 기타 상당수의 관보 등을 발행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음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최정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지식정보정책과 간행물 분석”, 《한국민족문화》 제17집, pp.121-287)

24) 세부 주제별 분석은 앞에서 기술한 최정태, 이제환, 송정숙, 박정길 등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따라서, 본 연구팀이 현재까지 수집한 단행본의 리스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2002년 4월 현재 데이터의 포괄성에서는 여전히 보완을 필요로 함을 밝혀둔다.

26)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상대국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는 ‘한국일본학회’를 중심으로 해방이후부터 진행된 일본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를 각 주제별로 분석한 바 있으며(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제30집 참조), 아울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일본연구자』, 『국내일본관련논저』, 『국내일본관련학과』,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日韓文化交流基金’에서 『日本における韓國・朝鮮研究 研究者リスト』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하여, 일본 내에 있는 한국관련 연구자 명단 총570여명과 그들의 연구업적을 망라적으로 집대성하는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東洋文庫’, ‘亞細亞經濟研究所’, ‘國立國會圖書館’ 등과 같이 개별 단위기관 차원에서 한국(조선)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료 및 관련 연구동향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일본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은 연구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비교평가는 여기서는 유보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지학적 관점에서 ‘계량적인 평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인 평가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의 몫이며, 그들에게 남겨둔다.

K C I